고흥군, 의료취약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운영

기초검진부터 진료·상담·복약지도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고흥군, 의료취약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단체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9일 고흥군장애인복지관에서 의료취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민·관·학 협력 통합 보건·복지서비스인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고흥군보건소를 비롯해 전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순천의료원,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전남약사회, 순천청암대학교, 고흥군장애인복지관 등 총 7개 기관에서 25명의 인력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고흥군보건소와 순천의료원 건강버스팀이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골밀도, 당화혈색소 등 기초검진을 실시했으며, 한의과 침 치료와 치과 진료도 함께 제공해 참여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전남약사회의 복약지도와 순천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진의 건강측정, 전남지체장애인협회의 푸드트럭 운영 등 기관별 맞춤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유빈 기자

보성 벌교읍 박왕수·정경희 부부, 쌀 1,000kg 기탁

보성군은 19일 벌교읍에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 박왕수·정경희 부부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 20kg들이 50포, 총 1,000kg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2022년 백미 800kg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00kg씩 기탁하며 5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기탁분을 포함한 누적 기탁량은 4,800kg이다. 이번에 기탁된 쌀은 벌교읍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와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식인 쌀을 지원해 해당 가정의 식생활 유지와 생계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왕수 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전했다. 김종남 벌교읍장은 "부부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기탁한 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에 고향사랑기부하고 '김장 투어'떠나자!

해남군이 철도 연계 기차여행 프로그램으로'김장볼런투어'를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장철을 맞아 명품배추의 고장 해남 현지에서 직접 김장을 담그는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운영된다.

해남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을 기부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운영기간은 12월 4~5일 1박 2일간이며, 왕복열차비와 차량비, 식사, 숙박비 등 제반 비용이 무료이고, 직접 담근 김장 5kg을 가져갈 수 있다.

(택배 발송) 김장 투어와 함께 3식 제공, 우수영 울돌소리 호텔 숙박, 땅끝마을 관광지 투어 등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김장볼런투어'는 여행을 뜻하는'투어(Tour)'와 자원봉사의'볼런티어(Volunteer)'를 결합한 개념으로, 참여자들은 배추농가 일손 돕기와 김장 담그기 체험을 함께하게 된다.

/박종옥 기자

진도군내중 학생들, 김장 김치 나눔 실천

진도군내중학교(교장 정성일) 학생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1학년 학생들은 지난 17일 교내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군내면 금골마을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22가구에 김장김치를 직접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들은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담근 후 군내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금골마을에 방문해 어르신께 김치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2026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장흥군은 지난 17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해온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6 장흥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약하는 장흥,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장흥군이 주최하고 장흥군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했다. 이날 현장에는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해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트롯장구팀의 경쾌한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27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영상 상영과 함께, 지역 곳곳에서 헌신해 온 유공자 15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진행하고, 자원봉사 다짐과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어 2부 화합 행사를 통해 봉사자들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김정근 기자

완도해경, 기상악화 속 기관고장 요트 구조

제주~부산 항해 요트, 강풍·높은 파도 속 14시간 만에 완도항 도착



기관고장 요트 예인 중인 완도해경의 모습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태환)는 18일 제주에서 부산으로 항해하던 중 기관고장과 기상악화로 항해에 어려움을 겪던 요트(세일링요트, 7톤, 승선원 1명)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해당 요트는 같은날 오전 8시경 제주 도두항에서 부산을 목적지로 출항했으며, 제주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중 엔진과열로 기관이 손상되어 선장이 제주광역VTS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항 당시 제주 도두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았으나, 이후 해상 기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정상적인 항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으로 요트가 강풍과 파도에 밀리는 상황에서 완도해경은 인근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요트의 상태와 승선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를 당부하며 근접 안전관리를 실시했으며, 해당요트는 약 14시간만에 완도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태현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는 기상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기상특보와 해상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관을 비롯한 항해·통신장비 등 주요 장비의 작동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항해 중에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관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무리한 항해를 자제하고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가영 기자

